

교회소식

- ※ 처음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 가족실에서 담임 목사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 ※ 2013년 교회표어: 성령의 은혜로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딤후3:14)
- ☞ 매일 정오 12시는 온 성도들이 성전 건물 이전을 위해 5분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 ☞ 이달의 캠페인 - 예배 시간 10분 일찍, 기도와 찬양으로
- ◎ **대림절 3:** 성탄이 가까이 왔습니다. 아기 예수를 모실 마음의 방을 예비합니다.
- ◎ **수요예배:** 이번주 수요예배는 두리하나 선교회 천기원 목사가 말씀 전합니다.
- ◎ **성탄예배:** 성탄 축하 예배가 12월 25일 오후 5시부터 있습니다. 부서별, 선교회별로 성탄 축하준비를 함께하는 아름다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 예배: 25일 오후 5시 (본당) / 성탄축하 잔치: 오후 6시 (본당) / 식사교제: 오후 7시 (홀)
- ◎ **수련회:** 전 교인 수련회가 임박했습니다. 서로서로 권면하셔서 함께하는 공동체가 됩시다.
일시: 2013.12.31(화) ~ 2014.1.2(목) 회비: 10불(1인) (담당: 이정인 집사)
장소: Hunua Falls 크리스천 캠프 주제: 연합하여 동거하는 공동체 (시편 133:1)
주요 3면에 있는 천로역정 줄거리를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 **기도회:** 한 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오는 12월 16일(월)~20일(금)까지 실시됩니다. 한해를 기도로 마무리하시기를 원합니다. (자원하여 특송하실 성도나 기관 신청받습니다)
시간: 오전 5시 30분, 장소: Chapel room 주제: 여호와와 나의 목자 (시편 23편)
기도담당: 박일영 장로(16일) 최득수 집사(17일) 박제용 장로(18일) 정진택 집사(19일) 정덕수 장로(20일)
- ◎ **사업계획서:** 각 선교회 임원들은 2014년 사업계획서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협조:** 공동체별 이름을 바꾸려고 합니다. 관심 있는 나라나 개인적으로 추천할 나라를 알려주시면 내년 공동체명 이름구성에 참고하겠습니다.
- ◎ **감사:** 오늘 성도간의 교제시 떡은 김광영, 장태옥 집사 가정에서 섬겨주셨습니다.
- ◎ **코스타:** 청소년 코스타가 17일(화) ~ 20일(금)까지 해밀턴에서 있습니다.

12월 새벽 기도회 본문

6일: 고후 3:12~18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 13일: 고후 7:2~7 관계 회복은 위로와 기쁨을 줍니다
20일: 시편 23:5~6 영원히 살리라 27일: 고후 12:11~21 사랑하면 아픔을 감내합니다

루마니아: 김유정선교사
중국: 김강한목사
바누아투: 삼마교회 및
청소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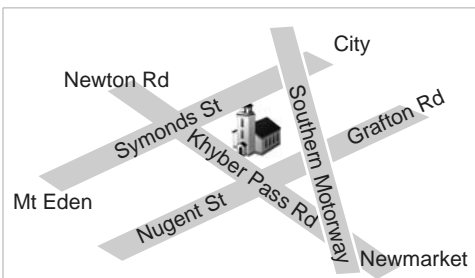
말알장애우 봉사

설교 방송:
www.youtube.com
/calvaryorgnz
Facebook:
www.facebook.com
/calvarykoreanchurch

예배시간 안내

예 배	시 간	장 소
주일1부예배	주일 PM 1:00	본당
청년모임	주일 PM 3:00	Chapel
수요예배	수요일 PM 7:30	본당
새벽기도	금요일 AM 5:50	Chapel
아동부	주일 PM 1:00	Chapel
중고등부	주일 PM 1:00	별관

오시는 길



2013년 12월 15일

15권 50호

교회창립 1999/07/14

www.calvary.org.nz



2013 성령의 은혜로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딤후 3:14)

대림절의 기도

- 최재명

봄을 기다리는 겨울처럼 험벗은 이들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교만을 꺾어 무릎 꿇고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구유처럼 더러운 마음을 비우고 닦아내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소란한 웃음을 버리고 회개와 눈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만을 경배할 예물을 준비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잃어버린 신앙의 첫사랑을 되찾기 위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익에만 민감했던 눈을 감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남몰래 버려둔 나의 십자가를 다시 지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움켜쥐기만 하던 손을 펴 마주 잡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한예수교
장로회

추갈보리교회

담임목사: 이태한

St. David's Presbyterian Church 70 Khyber Pass Rd. Grafton Auckland

Ph: 09 - 369-5077 Ph: 09-475-6312 PO Box 8298 Symonds Street Auckland 1150

주일 1부 예배

오후 1시	인도:이태한목사
진주	반주자
예배로 부름	시편 5:7, 11 인도자
개회송	찬양대
참회의 기도	다함께
※ 찬송	26장 다함께
※ 성서교독	117. 구주강림 3 다함께
※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함께
찬송	112장 다함께
대표기도	임병숙권사
성경봉독	시편 130:5~6 인도자
찬양대찬양	나무십자가찬양대
설교	약속어음 이태한목사
찬송	122장 다함께
헌금기도	인도자
교회소식	인도자
※ 응답송	살아 계신 주(1,3절) 다함께
※ 축도	이태한목사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청년 모임 (15:00)

Q.T. 나눔과
조별 성경공부

기도 / 박제용 장로

수요예배 (19:30)

인도: 이태한 목사
찬양 / 수요찬양단
기도 / 김철재 집사
성경 / 눅 6:36
설교 / 하나님의 마음 / 천기원 목사
합심기도 / 인도자
광고 / 인도자
찬송 / 453장
주기도 / 다함께

건축헌금 지난주: \$1,000.00
총계: \$634,790.29

◎ 12월 교회알지

한 주간 기도회:
12월 16일(월)~20일(금)
성탄주일:
12월 22일(주일)
성탄 축하예배:
12월 25일(수) 오후 5시
송년주일:
12월 29일(주일)
전교인 수련회:
12월 31일(화)~1월 2일(목)

◎ 12월 예배봉사자

예배안내 :
박일영/임혜자
새신자 안내:
김수원/최희숙
주차안내:
민광호
주방봉사
한상순/김윤숙/장태옥/
양윤주/박제란

◎ 기도순서

이번 주 애찬: 박제용 장로
다음 주일: 임혜자 권사
다음 주일 청년부: 정진택 집사
12월 25일 수요: 정혜숙 권사
12월 25일 애찬: 정덕수 장로
12월 29일 주일: 현석호 장로
12월 29일 청년부: 김정훈 형제

금주의 기도제목

교회와 성도를 위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인 교회로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구주 성탄을 진심으로 기다리며 예비하는 신령한 성도들이 되도록, 교회학교를 위한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사역자가 세워지며 모든 교사들에게 성령충만과 영적인 지혜가 더 하도록, 키위 교회와 한인교회들이 서로 연합하여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2013년 전교인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기독교 고전인 '천로역정' 내용을 프로그램화해서 우리 신앙 역정에 일어나는 수많은 난관들을 극복하는 지혜를 배우려고 합니다. (등장인물과 지명은 모두 신앙과 관련된 덕목이나 악덕, 유혹과 위험을 의인화한 것입니다.)

줄거리 2: 크리스천은 등에 짊어진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 절망이라는 이름의 진흙 수렁 속으로 점점 가라앉기 시작했다. 그러자 그 광경을 지켜본 온순은 여태껏 말해준 행복이 겨우 이것이나고 벌떡 화를 내며 늪 가로 기어 올라가서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 그때 나는 꿈속에서 도읍이라는 남자가 크리스천에게 다가가더니 그를 구해주는 것을 보았다. 크리스천이 외롭게 평원을 걷고 있는데 세속현자가 다가왔다. "안녕하시오? 우선 그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시오. 짐을 벗지 않으면 하나님이 베푸는 축복의 은혜도 기쁜 마음으로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세속현자의 말에 크리스천이 대답했다. "만일 이 무거운 짐을 벗어 던질 수만 있다면 그리하여 영생을 얻을 수만 있다면 도중에 어떤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현자는 말했다. "자, 저쪽에 있는 도덕이라는 마을에 합법이라는 신사분이 살고 있습니다. 그분이 도와줄 것입니다. 크리스천이 도덕의 마을로 방향을 바꾸어 가파른 언덕을 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다른 길을 찾다가 그만 언덕 위에서 활활 타오르는 불길과 만났다. 두려움과 무서움에 떨면서 세속현자의 말을 따른 것을 후회하였다. 그때 전도자가 엄숙한 얼굴로 다가와 길을 바꾸게 된 경위를 물었다. 크리스천은 수치심에 얼굴을 붉히며 자세히 말했다. (이것은 인생의 죄의 짐을 도덕으로는 내려놓을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전도자는 세속현자를 험잡꾼이라고 단정하고 자신의 말을 하나님이 증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크리스천이 크게 후회하며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는가 묻자 전도자는 다시는 옆길로 나아가지 말도록 충고했다.

얼마 후 크리스천은 좁은 문에 도착했다. 그 좁은 문에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는 글귀가 쓰여 있었다. 크리스천이 문을 두드리자 선의란 문지기가 문을 열어주었다. 크리스천은 문지기가 가르쳐주는 길을 보며 길을 잃어버리거나 방해물을 만나게 되지 않을까 걱정했다. 그러자 크리스천이 주저하는 이유를 눈치챈 문지기는 "바른길은 단 하나뿐이며 그 길은 매우 좁고 곧게 뻗어있으니 분간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말했다. 또한, 선의는 "비록 당신의 짐이 무거울지라도 구원의 장소에 이를 때까지는 참고 그대로 지고 가십시오. 거기에 이르면 저절로 당신의 짐이 등에서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크리스천은 선의 씨가 일러준 대로 해석자의 집으로 찾아갔다. 해석자는 크리스천을 반갑게 맞이하며 온통 먼지투성이인 넓은 객실로 인도하였다. 해석자가 하인에게 청소를 시키자 너무도 많은 먼지가 일었다. 그가 소녀에게 물을 뿌리라고 이르자 많은 먼지가 가라앉고 이내 말끔히 청소되었다. 이윽고 해석자가 말했다. "이 객실은 복음의 은혜로 성화된 일이 한 번도 없는 인간의 마음입니다. 먼지는 인간의 원죄를 의미합니다. 처음 이 방을 쓸기 시작한 사람은 율법이고, 물을 뿌린 아가씨는 복음입니다." (율법은 인간의 죄를 고발하지만, 복음은 인간의 죄를 용서하여 없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음 주에 계속)